"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익산농업기술센터 올해 12월 준공 목표

29일 진선섭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농업기술센터 인근 함열읍 다송리에 임시거주시설 10가구와 실습농장 3,3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치를 통하여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신규 귀농귀촌예정자들에게 농촌체험, 적응유도, 현장실습 및 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에 '2018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시거주시설을 건립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거주함과 동시에 농장을 직접 운영해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50 ~ 60㎡정도의 임시거주시설 10가구를 건립하고, 온실형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로 전입 예정에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거리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품목별 전문교육 참석유도를 통해 귀농귀촌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농기계 교육과 임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과 식량소득작물 기술전담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병해충 진단, 수분 및 양분관리 등 귀농귀촌인에게 꼭 필요한 현장 애로사항이 적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배 우리품종 전문 생산 단지 조성"

7억 5000만원 투입 2020년까지 3년간 추진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배 우리품종 생산, 선별, 유통 등 일관 체계를 구축하고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3년간 지속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 해부터 추진되는 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억 5천만원이 투입되고 유통 조직인 익산원협 APC와 배공선출하회가 참여하여 연간 5ha씩 3년간 15ha의 우리품종 배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다.

전문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배공선출하회'는 GAP 생산 등 고품질 배를 생산하여 익산원협 APC를 통해 매년 420톤 이상 싱가폴, 대만, 캐나다, 하와이 등에 수출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산, 선별, 유통 등 일관 체계를 갖춘 우수 품목조직이다.

참여농가는 묘목, 교미교란제, 노린재트랩, 고소작업대 등 고품질 배 안정생산을 위한 자재를 지원받고 익산원협 APC는 선별장, 선별시스템 등 선별, 유통 체계 일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문생산단지 참여농가에 대해 농약안전 사용교육, 검역해충 방제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철저한 예찰과 적기방제로 고품질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품종 그린시스 배를 국내는 물론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상하수도 시설물 · 공사현장 안전점검

군산시 수도사업소(소장 김양천)에서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다음달 7일까지 상하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2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 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5개반을 편성해 총 27개소(수도과 12개소, 하수과 15개소)의 시설물과 공사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소는 점검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사업장별 공사 진척사항 및 미비점 보완 조치, 야적장 토사유실로 인한 인접지 피해방지 조치, 굴착공사 추진 시 당일 복구 실시 등 안전관리사항을 점검해 위험요소 발생 시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양천 수도사업소장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익산시는 29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13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안내문을 보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하수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지하수관련 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6.13 지방선거 판세분석 - 군산시 광역의원 제4선거구

이성일 도의원의 빈자리는 누구로 채워질까?

문승우 후보

김문원 후보

박창수 후보

김안식 후보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은 가운데 자치단체장(군산시장)과 기초의원(시의원)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 광역의원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중에서 나운1·2·3동과 미룡동을 묶은 군산시 광역의원 제4선거구는 많은 유력 후보들이 재선의 이성일 도의원에게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신 자리였다.

이처럼 확고부동 자리를 잡고 있던 이성일 의원이 진작부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많은 후보들이 이 지역에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역정가의 분석과는 다르게 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이성일 도의원이 지난 3월 초 시장 및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내 경선을 치러 문승우(63) 전 군산시자원봉사센터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은 본 후보 등록 직전 김문원(49) 전북도당 서민경제대책특별위원장을 지명했다.

이어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에서 바람을 타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박창수(47) 전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노조위원장을 최종후보로 낙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김안식(44) 후보는 이번에는 광역의원에 도전한다.

/군산=김정훈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룡)와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및 클린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 클린선거 제안

"시민들에게 희망 주는 선거 돼야"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룡)와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및 클린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군산은 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지역경제가 추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시민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들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미래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룡 위원장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군산경제를 살리는 정책대결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앞장서 정책 및 클린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군산지역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과제로 정하고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의무경찰 대상 보건교육 실시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는 29일 군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20여명을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올바른 손씻기 등 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병과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성병 및 에이즈 환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안전한 성생활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는 HIV감염과 에이즈의 차이점, 에이즈 감염경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법, 에이즈의 증상 및 치료, 올바른 손씻기 방법, 뷰박스를 통한 손씻기 체험 등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에이즈 및 성병(성매개감염병)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을 특히 강조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감염병의 70% 이상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이즈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 외에도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 여부 조기진단, 치료 지원, 에이즈 익명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우려 시 12주 후 검사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